The Gospel of Mark
Sermon 60 – Sermon Notes
Title: "The great tribulation"
Scripture: Mark 13:14-23
Date preached: October 29th 2023

Scripture: Mark 13:14-23

14 "So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where it ought not" (let the reader understand),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15 Let him who is on the housetop not go down into the house, nor enter to take anything out of his house. 16 And let him who is in the field not go back to get his clothes. 17 But woe to those who are pregnant and to those who are nursing babies in those days! 18 And pray that your flight may not be in winter. 19 For *in* those days there will be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which God created until this time, nor ever shall be. 20 And unless the Lord had shortened those days, no flesh would be saved; but for the elect's sake, whom He chose, He shortened the days. 21 "Then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Look, *He is* there!' do not believe it. 22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rise and show signs and wonders to deceive, if possible, even the elect. 23 But take heed; see, I have told you all things beforehand.

14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며 16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17 그때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18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 그 때는 환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 21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2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23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few minutes to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As I'm sure you remember we began chapter 13.

The Lord Jesus' period of public teaching has now come to a close.

He will now devote the short time He has remaining to preparing the disciples for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s they leave the temple complex, most probably through the east gate which led onto the Mount of Olives one of the disciples points out to Jesus the magnificence of the temple structure. It was indeed an impressive building. It's huge white coloured stones and gold trim literally glittered and sparkled in the sun. Everyone who saw it was awed by its beauty. It was the pride of the Jewish people and the heart and soul of their nation. So when Jesus told them that this mighty edifice would one day be totally and utterly destroyed they must have been shocked. It is this revelation that leads onto a lengthy and very challenging section of Jesus' teaching known as the Olivet discourse. As I pointed out last week this rather fancy title merely indicates that it took place on the Mount of Olives.

It is a very difficult passage to correctly interpret and understand. Part of this difficulty lies in knowing what is intended as near and what is far future prediction. Or more simply what parts are

intended for the disciples first hearing Jesus' words, and what parts are intended for those living at the time shortly before the Messiah's second coming. The Lord Jesus was questioned by four of the disciples. So what we are reading is His response to them. So our first rule of interpretation must centre on what it meant to these four Jewish men. How did they understand what He said?
Let us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points I made last time.

The Olivet discourse begins when the disciples Peter, James, John and Andrew come privately to Jesus. His pronouncement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has clearly shocked them. As patriotic Jews, the notion of the annihilation of the centre piece of their nation is incomprehensible to them. They quite naturally want some specific information from Jesus. In particular, they want to know two things;

A) When this will take place.
B) What are the signs they should look out for that indicate that things are being fulfilled.

오늘의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13 장을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개적인 가르침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남은 짧은 시간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동쪽 문을 통해 성전을 떠날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께 성전 건물의 장엄함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거대한 흰색 돌과 금색 장식이 말 그대로 햇빛에 빛나고 번쩍였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자 민족의 마음과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거대한 건물이 언젠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감람산 설교라고 알려진 길고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지적했듯이 이 제목은 이 일이 감람산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어려움의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측과 먼 미래에 관한 예측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부분은 무엇이며,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네 명의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첫 번째 규칙은 이 네 명의 유대인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성전 파괴에 관한 그분의 예언은 분명히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국적인 유대인으로서 나라의 중심이 전멸된다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원합니다. 특히 그들은 두 가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A) 언제 이루어질까요?
B) 그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As I said last week without this precise information it's difficult to properly prepare. Is Jesus talking about events that will take place next week or in fifty years! So what comes next from Jesus is tailored specifically for the disciples and deals, in the main with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which occurred as part of the Roman conquests in 70 AD.

Firstly, Jesus warns the disciples about things that will occur that are not to be taken as signs of the end. These are things that will happen in the natural scheme of things and are not to understood as

signalling the end. Firstly there will be a rise in false or fake messiahs. These men will either claim to be the messiah themselves, or else say that they speak with the messiah's authority or voice. The disciples are not to be taken in or deceived by these men. Secondly, they need to be aware that there will be a number of actual wars and the rumours of further wars to come. Again these are not to be taken as definitive signs. They are simply to be seen as part of everyday life in a sinful and fallen world.

Thirdly Jesus talks about how there will be earthquakes, famines and other troubles afflicting the world. Again, even though these things are catastrophic for the people living through them they are not an indication of the end, rather they are to be seen as the "beginning of sorrows." What Jesus means by this expression is that these things are like a woman's labour pains. The labour pains are a signal that the baby is on the way. The mother is to prepare herself for the arrival of her child. However, the labour pains as many women know often go o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efore the baby finally arrives.
So in this case the wars, rumours of wars, famines and other troubles are just the start of the troubles that eventually end in the overthrow of Jerusalem and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en the Lord Jesus goes on to talk about what it will be like for believers living at this time. Followers of Christ will face persecution from a number of sources. They will face coordinated and structured persecution at the local, district and national level. They will be singled out not because they a rebellious, or pose a threat to the cohesion of society but simply because they love the Lord Jesus. This will be very hard for Christians to endure. But this is not the full extent of what believers will face. In these difficult times even families will turn against one another. Christians will be betrayed to the authorities by fathers, mothers, sisters and brothers. Their hard and hateful hearts will be unmoved as their family members are taken away and killed.

But through all this the gospel message will not be silenced. The flame will never be extinguished. It is God's will that the good news be carried to all nations. Nothing will prevent this from happening. So Jesus concluded this section by encouraging the disciples to stand firm. Although the temptation may be to fall away they are to endure knowing that in Christ they are saved.

Today we will pick up where we left off in the Olivet Discourse.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50 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질문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로 서기 70 년에 로마 정복의 일환으로 발생한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로 여기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며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거짓 또는 가짜 메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메시아의 권위나 그를 대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실제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전쟁이 더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종말의 결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지진, 기근 및 기타 세상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적일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마치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통은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듯이 진통은 아기가 마침내 태어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쟁, 전쟁의 소문, 기근 및 기타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환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는 이들의 상황이 어떠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지방,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자이거나 사회의 결속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을 고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들조차 서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들이 기도교인 가족을 당국에 배신할 것입니다. 가족이 붙들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완고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침묵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굳건히 서라고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믿음을 저버리고싶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은 감람산 설교에서 중단했던 부분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14 "So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where it ought not" (let the reader understand),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As we saw in the opening to this discourse the Lord Jesus explained about the terrible but natural occurrences that were part of life in a fallen world. These things were to be regarded as not signs of the coming destruction. Now in this section He begins to explain what will be the signs.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this is a challenging section of scripture. This is because we must determine which of what Jesus says here applies directly to the disciples, and what has a broader more cosmic scope.

Much of what the Lord says would resonate strongly with Peter, James, John and Andrew. This should not surprise us. They after all asked Him the questions, therefore we would expect Him to furnish them with an answer. But also what we are reading here clearly has a bigger cosmic significance that goes way beyond His original hearers. How can we reconcile these two things? Well as I pointed out before it is helpful to think in terms of near and far future.

14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우리가 이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보았듯이, 주 예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일부인 끔찍하지만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표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지, 어느 부분이 더 넓은 우주적 범위를 포함하는 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께 질문을 했고 그분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그분의 원래 청중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So as we read the Olivet Discourse we will be able to discern that the Lord Jesus is actually talking

about two different chaotic destruction events. The first is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at takes place in 70 AD. The second are the events that surround His second coming.

Let us look at the first sign that indicates that the terrible times have now arrived. It will be in visibly seeing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tanding where it should not be. What is Jesus talking about here?

Let's begin with a definition. An abomination is "something that causes disgust or hatred," and desolation is "a state of complete emptiness or destruction."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ctually a Hebrew idiom which means; "the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The abomination as described by Daniel is a sign connected with the ceasing of the daily sacrifice and the worship of God in the temple. The ceasing of worship and the defilement of the temple comes about due to pollution from gentiles. This is predicted in Daniel (9:27; 11:31; 12:11). The Daniel texts prophesied the actions of the later Syrian king Antiochus Epiphanes. Just his name itself is blasphemous. It means "illustrious one" or "god manifest." How did Antiochus Epiphanes defile the temple? Well in 167 BC he outlawed Jewish observances at the temple, sacrificed a pig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and erected an idol to Zeus in the temple. What Antiochus did certainly qualifies as an abomination. It certainly riled up the Jews who rose up against him in what is known as the Wars of the Maccabees.

So clearly Jesus is indicating that something or someone terrible will be appear in the temple and will bring to an end the proper worship of God in this place. Who then might this be?

Luke in his gospel refers to this time in the following terms,

"But when you see Jerusalem surrounded by armies, then know that its desolation is near." (Luke 20:21)

Luke here appears to be speaking of the Roman armies that surrounded the city in 70 AD and later went on to capture and completely destroy the city. This has led some to assume that the desolation refers to the symbol or standard of Rome (the eagle) being brought into the temple and sacrifices being offered. This act of sacrilegious idolatry certainly qualifies as an abomination. Jesus may also have been thinking of the Roman emperor Caligula.

In 40 AD he planned to erect a statue of himself as a god in the temple. In reality his plans never came to pass because he died before his statue could be set up. Or perhaps Jesus is thinking of 68 AD when Jewish zealots committed various atrocities within the temple. They even installed a clown called Phanni as high priest.

Others look beyond these first century events and see a future time when these things will be fulfilled. Jesus said that these events would bring in the Great Tribulation (Mark 13:19) and that those days would culminate in the triumphant return of Jesus (Mark 13:26-27). Since we're still here more than 2,000 years later, we know that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wasn't fulfilled in the first century. So clearly Jesus is talking about a future prophecy of one who will stand in the temple and whose actions or presence will defile it. So is this a reference to the "the prince that shall come" (Dan 9:26), the coming world dictator, the beast, or a figure we more commonly refer to as "the Antichrist?" This seems highly probable. I think therefore that it is best to regard what Jesus says here as being a prophecy with a double fulfilment. Firstly we can see it as a prediction of the Roman desecration of the temple which occurred in 70 AD. And secondly it refers to the activity of the Antichrist in the future.

Jesus warns His hearers that when this event occurs they are to flee Judea and seek shelter in the mountains. The mountains were always regarded as a place of safety and refuge in times of trouble. It was the case that this exhortation by Jesus was taken literally by Christians in 66 AD when the Roman army arrived in Jerusalem. The Christians who fled to the mountains were spared the great destruction. In the end times too the Jews will again seek refuge in the mountains. Let us read on and see what other advice Jesus has for people living at this time.

습니다. 첫 번째는 AD 70 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들입니다.

이제 끔찍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케하는 가증한 것"** 이 있어서는 안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증한 것 abomination 은 "혐오감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고, 멸망(황폐함) desolation 은 "완전히 비어 있거나 멸망된 상태" 입니다. 여기 이 표현은 실제로 "황폐케하는 가증한 것" 이라는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가증한 일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는 것과 관련된 표적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이방인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9:27; 11:31; 12:11). 다니엘서에는 이후에 올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자" 또는 "신이 나타나심" 을 의미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기원전 167 년에 그는 성전에서 유대인의 제식을 불법화하고 번제단에 돼지를 바쳤으며 성전에 제우스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안티오코스가 행한 일은 확실히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분노케했고 마카베오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그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끔찍한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성전에 나타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예배가 끝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사기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언급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0:21)

여기서 누가는 서기 70 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후에 그 도시를 점령하고 완전히 파괴한 로마 군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황폐함desolation 이 로마의 상징(독수리)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희생 제물이 그것에게 바쳐질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우상 숭배 행위는 확실히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 40 년에 그는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상이 세워지기 전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예수께서는 유대 열심당원들이 성전 내에서 다양한 잔학 행위를 저질렀던 서기 68 년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입니다. 그들은 Phanni 라는 광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 세기 사건들 너머를 바라보며 이러한 일들이 성취될 미래의 때를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이 대환난 Great Tribulation 을 가져올 것이며(막 13:19) 그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3:26-27). 2000 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있으므로, **멸망케하는 가증한 것**이 1 세기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전에 서게 될 사람과 그 자의 행동이나 존재가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차 올 왕"(단 9:26), 장차 올 세계 독재자, 짐승, 아니면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적그리스도" 라고 부르는 인물에 대한 언급일까요?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이중 성취를 지닌 예언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서기 70 년에 일어난 로마의 성전 모독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면 유대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산은 언제나 재난이 닥쳤

을 때 안전과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서기 66 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권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멸망을 면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은 다시 산으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다른 조언이 무엇인지 읽어 보겠습니다.

15 Let him who is on the housetop not go down into the house, nor enter to take anything out of his house. 16 And let him who is in the field not go back to get his clothes. 17 But woe to those who are pregnant and to those who are nursing babies in those days! 18 And pray that your flight may not be in winter.

The sense conveyed here in these verses is one of extreme urgency. These very difficult times would come on rapidly with little warning. When they begin there will not be time to pack a suitcase and get things in order. Palestinian houses almost always had flat roofs that were accessed via external staircases. If you happened to be on the roof it would take time to go down, enter the house and collect your belongings.

Although this would be the natural temptation they were to flee with whatever they had at the time. It's foolish to think of possessions at a time of crisis but so often people do. How often do you see people in disaster movies going back into the burning building or sinking ship to rescue a precious heirloom or keepsake. These people invariably die in their attempts to rescue the diamond ring their Aunt Agnes gave them.

The same principle of rapid escape also applied to people working out in the fields. They were not even to go back for the clothes they may have removed whilst working. We can see modern parallels with wars or natural disasters that take place today. Refugees don't have time to collect their possessions. In order to survive they must get out to a place of safety as quickly as possible.

The Lord Jesus again demonstrates His great compassion by highlighting what a difficult time this will be. The old and infirm, pregnant women and mothers with small infants will find it particularly distressing. Believer are encouraged to pray that these events do not take place in the winter. Travel on foot in the winter is hard and uncomfortable. So Jesus urges His hearers to pray that the difficulties of these days are not exacerbated by cold or bad weather. Let us read on.

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며 16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17 그때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18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이 구절에서 전달되는 의미는 극도로 긴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우 어려운 시기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급속히 닥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오면 가방을 싸고 물건을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은 거의 항상 외부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있다면 내려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기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시에 소유하고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치고 싶은 자연스러운 유혹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소유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영화에서 사람들이 소중한 가보나 기념품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이나 가라앉는 배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이 사람들은 아그네스 이모가 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하려고 가다가 항상 죽습니다.

신속한 탈출해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 벗었을 수도 있는 옷을 가지러 가서도 안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에도 비슷합니다. 난민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일 지 강조하심으로써 다시 한 번 그분의 크신 긍휼을 보여 주셨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특히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겨울철에 걷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그 시기의 어려움이 추위나 악천후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 For *in* those days there will be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which God created until this time, nor ever shall be.

The reason for this haste is because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worst time in all of human history. We call this period of time the tribulation. In the original Greek this is the word *thlipsis.* It is used here to denote a time of terrible oppression, affliction, tribulation, distress or dire straits. How bad will it be? Well, the Lord Jesus here describes it as being the worst time since the creation of the earth and an event so bad it will never be surpassed. That means it's going to be VERY BAD!

Let me give you a few historic events that were trully catastrophic by way of comparison.

● In 1343 bubonic plague began to sweep across Europe. Over the next eight years the plague rapidly spread. It's effects were horrifying, two-thirds of the population of Europe was afflicted with the plague. Half of those afflicted or around 25 million people died.

● In 1931 the Yellow River (Huang He) in China flooded. It caused huge and widespread devastation across China that left approximately 80,000,000 people homeless. The precise number killed by the floods is disputed but a figure somewhere between 1-4 million people perished.

● The second world war which lasted from 1939 to 1945 encircled the globe. We may never know with absolute certainty how many human beings lost their lives but estimates usually put the figure at between 70 and 85 million people.

These were all devastating events, but Jesus said that this future time of tribulation will be far worse. What a terribly sobering statement. The Book of Revelation describes this terrible time when God pours out His wrath on a God-rejecting world. It will be a time unparalleled in all human history. A time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Picture your worst nightmare and then multiply it a million times.

We don't know exactly when this will take place. The precise time is known only by the Father. But as I look at the world today I cannot help but see the many necessary pieces rapidly slotting into place. It seems that nothing else is necessary for the end times to begin. It's wishful and naïve to think that things are, or will get better. Things are deteriorating at a frightening pace. Some of the beliefs, values and ideas being promoted today in the west would have been unthinkable even ten years ago. People would have laughed and thought you were crazy if you'd suggested that in 2023 you would be able to change your gender on a whim, or that biological men would be able to compete in women's sports. Or that men in UK hospitals would have to be asked if they are pregnant.

At the moment things are very finely balanced, but the event that tips us one way or another and brings about a calamity may come suddenly and without warning. So I feel brothers and sister that it is my duty to tell you to be aware of what is going on. Now is not the time to be backsliding and distant from God. I don't want you to be the person working out in the field that has to flee in winter without their jacket.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 necessary is to ensure that you are right with the Lord Jesus Christ. If you do not truly know Him as your Lord and saviour then don't delay. Confess to God right now that you are a sinner, turn from your life of sin and put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alone to be your saviour. When you do this you will enter into a state of joy and peace. The world may be trundling rapidly towards its demise but you will have the prospect of salvation to cling to. I say this because the Lord Jesus gives a wonderful promise to those who love Him and worship Him as their Lord and saviour. It's the ultimate “Get our of jail free” card. Let's

read about it now.

19 그 때는 환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시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환난 the tribul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 이것은 thlipsis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끔찍한 억압, 고난, 환난, 고통 또는 무서운 곤경의 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나쁠까요? 자,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그것이 창조 이래로 최악의 시기이며 그것을 결코 능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 매우 나쁠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교를 위해 몇 가지 재앙적이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343 년에 흑사병 bubonic plague 가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8 년 동안 흑사병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고, 유럽 인구의 3 분의 2 가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반, 즉 약 2,500 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 1931 년 중국의 황하(黃河)가 범람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약 80,000,000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100 만~400 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1939 년부터 1945 년까지 지속된 제2 차 세계대전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추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 수치는 7 천만에서 8 천 5 백만 명 사이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 환난 때가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진노를 쏟으시는 이 끔찍한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상 상조차 하기 힘든 시대. 최악의 악몽을 상상해보고 백만 번 곱해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을 볼 때 저는 필요한 많은 조각들이 빠르게 제자리를 잡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 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상황은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에서 장려되고 있는 신념, 가치 및 사상 중 일부는 10 년 전만 해도 상 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3 년에는 성별을 바꿀 수 있다거나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비웃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영국 병원에 있는 남성들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게 하고 재난을 가져오는 사건이 갑자기 예고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 주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뒤로 물러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겨울에 재킷도 없이 도망쳐야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의 삶에서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기쁨과 평화의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만 당신은 붙잡을 구원의 전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

고 자기들의 주님과 구원자로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감옥에서 해방되는" 카드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읽어 봅시다.

20 And unless the Lord had shortened those days, no flesh would be saved; but for the elect's sake, whom He chose, He shortened the days.

The tribulation period will last for seven years. This as Jesus explains is actually a merciful act. If it were to last any longer then no one would survive it. The bible is very graphic regarding what will take place. The first half of the tribulation will be rife with war, disease, and the persecution of those who come to Christ after the rapture. The second half (the Great Tribulation) will be even worse. The world will be beset by tragedies. One-third of the planet's vegetation will burn, all the sea creatures will die, a third of mankind will die in war, and a great earthquake will shake the world around the same time that hundred-pound hailstones fall to earth (Revelation 8:1–9:21). It will be a terrible time to be on earth but thankfully due to our merciful god we will not be on the earth at this time. We, the elect, the chosen ones will be raptured out.

Before I talk about areas of disagreement between Christians on this subject let me first talk about the fundamentals that nearly all believers share. These things are quite complicated and there is a great deal I could say. So please be aware that for time's sake I am giving only a very brief or condensed explanation. All believers of whatever persuasion hold to the following.

20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

환난은 7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더 이상 지속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환난의 전반부는 전쟁과 질병 그리고 휴거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된 자들에 대한 박해로 가득할 것입니다. 후반부(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극에 휩싸일 것입니다. 땅의 초목의 3 분의 1 이 불타고 바다 □ □□□ □□, 인류의 3 분의 1 이 전쟁에 죽고 그와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백 파운드짜리 우박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계 8:8). 1~9:21). 지구상에 사는 것 자체가 끔찍할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시간에 지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거의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복잡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상 매우 간단하게 요약된 설명만 제공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모든 신자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1) There is coming a time of great and terrible tribulation
2) After the Tribulation, Christ will return to establish His kingdom on earth
3) There will be a Rapture for believers

The major disagreement lies in when, in regard to the tribulation the rapture takes place. There are three main viewpoints on when the "church" (the elect) leaves the earth.

1 **Pretribulationism** – This is the belief that the Rapture will occur before the Tribulation period begins

2 **Midtribulationism** – As its name suggest this is the belief that the Rapture will occur at the midpoint of the Tribulation.

3 **Posttribulationism** – This is the belief that the Rapture will occur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period.

The position that I loosely hold is that of a pretribulation rapture. You may disagree with me which is fine. You may not find the scriptural evidence very convincing.

Part of your Christian growth and maturity lies in studying the scriptures for yourself. So don't take what I, or any bible teacher tells you without examining it against scripture. This is a much discussed area and many sound and orthodox bible scholars have differing views on this controversial subject.

I believe, and I will shortly support my position with scripture that the elect will be raptured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tribulation. As support for this I would cite the following passages of scripture.

1) □□□□□ □□□□ □□ □□□□□
2)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3) 믿는 자들에게는 휴거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의견의 불일치는 환난과 관련하여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에 있습니다. "교회"(선택받은 자)가 이 땅을 떠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1 **환난전설 Pretribulationism** – 환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2 **중환난설 Midtribulationism**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휴거가 환난의 중간 지점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3 **환난후설 Posttribulationism** - 환난기간이 끝난 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가 갖고 있는 입장은 환난 전 휴거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설득력있는 성경적 증거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 성장과 성숙의 일부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성경 교사가 말하는 것을 성경과 비교하고 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은 많이 논의되는 분야이며 많은 건전하고 정통적인 성경 학자들도 이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택한 자들이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될 것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저의 입장을 곧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저는 다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9 For they themselves declare concerning us what manner of entry we had to you, and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10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even* Jesus who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1 Thes 1:9-10)

9 For God did not appoint us to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Thes 5:9)

10 Becaus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persevere,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which shall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Rev 3:10)

In first Thessalonians 4:18 the Rapture is described as the believer's "comfort." Now let us think

carefully about that. If we had to live through all, or even a part of the tribulation prior to the rapture it's hard to imagine it as being a comfort. I suppose we could argue that only having to endure half, rather than the full tribulation period would be some comfort. Compare this idea with a pretribulation rapture. Now that would be a great comfort. It would mean we do not have to live through the horror and suffering of the tribulation period. This I believe is God's grace to His chosen people. We will not have to go through this time. Therefore in the rapture the believer has wonderful hope and comfort in Christ. Let us read on.

5.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6.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9-10)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9)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10)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8 절에서는 휴거가 신자의 "위로 comfort"로 묘사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죠. 우리가 휴거 이전에 환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뎌야 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환난 기간을 절반만 견디는 것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환난 전 휴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기의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에 대한 믿음으로 크리스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갖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 "Then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Look, *He is* there!' do not believe it. 22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rise and show signs and wonders to deceive, if possible, even the elect.

False teachers have plagued the church from the very beginning. They have come in a variety of forms. Sometimes people who are mentally unbalanced think they have had visions and are special in some way. Often their eccentricities have attracted people to them. Others have seen "religion" as a way to exploit or profit from others.

So once again here in Jesus words we must remember the near and the far future. In the near future of the listening disciples there were deceivers. Josephus mentions one Simon of Gerasa. He pretended to be a deliverer of the people from the Romans. He gathered a crowd of followers, and gained admission into Jerusalem before harassing the Jews. In a similar way, Eleazar and John, leaders of the Zealots, gained admission into the holy place, under the pretence of defending the city, but really that they might plunder it.

But of course, Jesus here is also warning us about future deceivers. In the terrible end times to come we will continue to see such people rise up. When people are desperate, they frequently look for anyone who offers guidance or leadership. So strong confident and charismatic leaders will always arise and draw a crowd. It should not surprise us therefore that when such figures appear that they are hailed, or present themselves as being the "christ." They will have some success. Some people will be deceived and led astray. Part of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se people show or demonstrate certain "signs and wonders."

We should note that warnings about false prophets who offer "signs and wonders" to confirm their words can be found throughout the Bible. What exactly these signs and wonders will be is open to speculation.

Perhaps they will utilise modern technology such as AI, holograms or transhumanism in order to perform "miracles or other signs." We must also remember that Satan will be involved and that he may be empowering these deceivers with supernatural power. Therefore we should not fool ourselves, these deceivers will be convincing and may even turn the eyes albeit momentarily of the elect. This is why the Lord Jesus gives us this warning here. Believers should not be misled into thinking that the Messiah has returned and go out to see him in the marketplace. There will not be any confusion about when the Messiah returns. He come from heaven, therefore we need to always be looking up. Let us look at our final verse for today.

21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2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불균형한 어떤 이들은 자신이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그들의 기이함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멀지않은 가까운 미래에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거라사의 시몬을 언급합니다. 그는 로마인들로부터 백성을 구원한 척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당의 지도자인 엘아자르와 요한도 그 도시를 방어한다는 구실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시를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예수께서는 먼 미래의 사기꾼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끔찍한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일 때 가르침을 주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은 항상 일어나서 군중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서 환호를 받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특정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적이나 다른 이적"을 행하기 위해 AI, 홀로그램,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은 현대 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개입할 것이며 그가 이 사기꾼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되는데 이 사기꾼들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택하신 자들의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은 메시아가 돌아왔다고 오해하고 시장에서 그를 만나러 나가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올려다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3 But take heed; see, I have told you all things beforehand.

We see in this verse the overall theme of Mark chapter 13 summarised. We have an idiom in

English which goes, “Forewarned is forearmed.” It simply means that if you know about something in advance you can be ready and prepared. This is why when a typhoon is on the way the weather reports give us a warning. This prior notification allows us to get ready. We can lash things down, and make sure we have fresh water and other provisions to hand. So Jesus here is if you like giving us a bad “storm” prediction. Difficult times are coming, troubling things will happen. False teachers with supernatural powers will rise up and persuade people that they are the returned christ. We will experience wars (Mark 13:7), natural disasters (Mark 13:8), persecution (Mark 13:9), and betrayal (Mark 13:12). These events will decimate the human population and nearly destroy the earth.

When these things begin people will say they had no prior warning. This is not the case. Jesus Himself warned us, and therefore we have no excuse for not anticipating and being ready for these things.

23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가복음 13 장의 전체 주제가 요약되어 있음을 봅니다. 영어에는 “Forewarned is forearmed ”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태풍이 올 때 일기 예보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이 사전 통지를 통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단히 고정하고 깨끗한 물과 식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강한 “폭풍”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 □□□□□ □□□.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막 13:7), 자연재해(막 13:8), 박해(막 13:9), 배반(막 13:12)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구를 거의 파괴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사전 경고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God is supreme over the forces of evil.

There are terrible and frightening times to come. We may or may not live to see them. However as believers we are not to be terrified and cowed in fear. Like the Christians in the first century, we may feel as if evil is in control of our world. It's true that Satan and his minions are powerful, but they are NOT in control. God is. The bible makes this abundantly clear. This means that even the actions of the evil powers are ultimately under God’s control. He only allows them to go so far. Perhaps like me you've read or heard about some of the terrible scenarios that may or may not play out in the future.

Will we experience a much worse global pandemic? Will AI take over? Will there be a war between the USA and China? Will nuclear weapons be used? These are all terrifying prospects. Things that give us restless nights and troubling nightmares.

However, as in every natural catastrophe, the storm ends and peace returns.

At the end of history the return of God’s peace will last for eternity. The powers of evil are doomed, their fate is determined for God is sovereign and will end this world at the time He has chosen. So let us not be worried or fearful. Let us pray that God shows us mercy and that He stays the hands of those seeking to bring about evil. But at the same time let us trust that He knows what is best. Let us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He has promised that He will reward His faithful followers with eternal joy and peace.

앞으로는 끔찍하고 두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서는 안 됩니다. 1 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강력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 하십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세력의 행위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합니다. 아마도 저처럼 여러분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세계적 유행병을 경험하게 될까요? AI 가 사람들을 대체 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핵무기가 사용될까요? 이것들은 모두 무서운 전망입니다. 우리를 불안한 밤과 괴로운 악몽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나 모든 자연 재해가 그러하듯 폭풍은 그치고 평화가 돌아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망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선택하신 때에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악을 일으키려는 자들의 손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심을 믿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2 Christ's coming is certain but unknown.

Jesus Christ is coming back. Isn't that the most wonderful news. We have not been ignored or forgotten. Our saviour will return for us. The return of Christ is everywhere in the New Testament (Matt. 16:27; Luke 17:30, Rev. 1:7). It's a fact that cannot be disputed. However, while the fact of it is irrefutable, its timing has not been revealed. Although history has seen plenty of date setters they have all proven to be wrong. There's a very good reason why God has not revealed the specific date. It's because He wants us to remain ready and vigilant. You know how people are. If we knew with certainty that Jesus would return on March 17th 2031 what would people do? Many would of course just deny such a thing, but what about the majority of people. Well, I think they'd go on living their normal sin filled lives right up until March 16th. Then they would hastily repent and profess to love Jesus. They wouldn't use the time available to share the gospel because they'd claim that since the date is known by all why bother.

Therefore every generation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has lived in expectation of Christ's imminent return, and that is exactly how God wishes it to be. There is no room for lazy, carnal Christians in the kingdom. So what are we to do whilst we wait? How are we called to live? Well we know with certainty that our Lord and saviour will return, but we don't know when. That means that we are to live until He returns in daily obedience to God. We are not to fall away or be lazy. We are to love, serve and worship Him with all that we have at all times. We are to use the time that we have to share the gospel. Since the time may be short every opportunity is to be seized. Let us pray that whilst we wait with eager anticipation we are living in a way that please and honours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소식 아닌가요? 우리는 무시되거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마 16:27; 눅 17:30, 계 1:7).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밝혔지만 모두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으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2031 년 3 월 17 일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엔 그들은 3 월 16 일까지 죄로 가득 찬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들은 서둘러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가능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통틀어 모든 세대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게으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구원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이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지거나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항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